

## 집단 의식, 과학은 뭐라 말하는가?

개미들은 집단 의식이 생태적이어서 수많은 개미 군단이 한 개체처럼 움직이며 놀라운 일을 해냅니다. 그러나 인간은 개별성이 너무 강해 함께 무언가를 도모한다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로버트 케니는 이 글에서 집합 의식을 일깨워 개인의 경계를 넘어 가는 사람들에게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들 각자는 개별적 하나이면서 동시에 전체일 수도 있는 의식상태로 삶을 살아가는 이들입니다.(편집자 주)

(지난 호에 이어서)

나와 당신이 어떻게 ‘우리라는 하나의 의식 영역으로 진입하게 되는지, 그리고 낯선 객체이거나 ‘그것’으로 존재하던 당신이 어떻게 이해와 배려의 품안에 있는 ‘그대’라는 진정한 존재가 되었는지는 신묘한 미스터리다. ‘우리’라는 의식 영역은 우주(Kosmos : 물리적 우주 뿐만이 아닌 존재의 모든 영역)의 심장부를 점(占)하고 있는 듯하다.

-켄 윌버(Ken Wilber)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은 학자와 일반인 모두에게 집단 의식이라는 현상을 조사, 이해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과학과 지혜의 전통에 의해 제시된 가능성을 개괄하기 위함이다. 다음의 용어들이 항상 같은 식으로 사용된 것은 아니지만 집단 의식을 나타내는 데 번갈아 언급 되었다. 그룹 의식, 공유 의식, 상호 연관, 장(場), 생태, 전체, 우주적 의식, 또는 대우주적(Kosmic) 의식 등. 많은 경우 이 다양한 용어는 의식의 더 깊은 단계와 연관되어 늘 확장되고 있는 정체성과 배려의 영역을 반영한다.

의식을 먼저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연구 프로그램을 행함에 있어 상당량 집단 지혜에 초점을 맞추지는 않았다. 나 자신의 연구와는 별도로, 자체적으로 집단 지혜에 관해 조사하는 것을 어디서도 찾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에 나온 이론과 연구 결과가 간접적으로 집단 지혜에 적용되도록 했다.

나는 제시된 연구가 앞으로 최소 20~30년간 특정 순서에 따라 검토되고 탐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현상의 보급, 전파의 역사를 살펴본다면, 개척자들은 그들의 아이디어가 주류에 진입하고 연구 자금을 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글이 집단 의식과 지혜에 관한 연구에 흥미를 진작시킬 것을 희망한다. 이러한 연구 분야의 선구적 연구자들과의 대화에서 한 가지 주제가 지속적으로 떠올랐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집단 지혜를 개발하는 것이 우리가 지구적으로 접하는 복잡다기한 사회 문화 이슈를 다루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 과학의 역량과 그 한계성

과학적인 탐구는 훈련된(논리정연한) 사고를 낳아 어떤 현상이든 탐색할 수 있게 하며, 아직 검증되지 않은 가정이나 신념을 파헤치게 할 수 있고, 혼란스럽고 중복되고 불필요한 용어와 관념을 명확히 할 수 있다. 기발한 생각이

사회 전반에 퍼져 나가면 그런 생각은 종종 원래의 혁신자와 개척자에서부터 학계와 과학계로 나아가게 마련이다. 학계와 과학계는 집단 의식 연구에 엄격한 규율을 적용함으로써 조직과 공동체 지도자들에게 가교를 놓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엄격한 규율이 없었다면 그들은 집단 의식 현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놓치고 말았을 것이다. 만약 과학적인 조사를 통해 집단 의식의 실상과 사회에서의 효력이 인정된다면 향후 10~15년간 집단 의식 현상은 보다 광범위하고 심도있게 주류 사회에서 받아들여질 것이다. 만약 집단 의식의 잠재적인 이득이 창의력, 리더, 육체적·정신적 건강, 문제 해결, 그리고 지속가능성과 같은 분야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 설명되어질 수 있다면, 우리 삶의 이러한 측면들은 변환되고 공동선의 진보는 상당한 수준이 될지도 모른다.

다른 한 편으로 전통적인 과학은 집단 지혜의 모든 측면을 검토하는 데 있어 그 역량이 한정되어 있다. 켄 윌버가 언급한 바와 같이, 과학은 감각적인 경험을 검증하거나 이성, 논리, 관념(현상론 철학과 심리학)을 통해 이해될 수 있는 현상을 고찰하는 데 그 진가를 발휘하지만, 집단 의식의 일부 측면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심사숙고와 명상이 요구될지도 모른다. 또한 직관적 지식이나 인식과 같은 초이성적이고 초논리적이며 초정신적인 영적 직관(gnosis)을 통해 지식에 접근하는 소양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러한 경험은 전세계의 전통적 지혜에 의해 밝혀진 바 있다.

집단 의식의 연구는 인간 의식의 고차적 발전단계나 영이나 무한 비이원적 공(空)의 직접경험 등을 탐사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경험은 제한된 범주와 이원론적 설명이 아니라 시(詩)나 은유에 의해서만 표현될 수 있다.

아인슈타인은 종교 없는 과학은 눈먼 것이며 과학 없는 종교는 절름발이라고 했다. 그 둘을 분리한다는 것은 넌센스이고 이상하게 보였기 때문에 나는 연구와 지혜의 전통을 논하는 데 있어 윌버의 통합모델(Wilber's integrative model)을 기본체제로 선택하였다.

## 명확한 정의(定義)를 명료하게 하려는 도전

만약 우리가 집단 의식에 과학적으로 접근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그것을 규정하는 명확한 정의를 우리의 경험과 관찰에 근거해 내려야 한다. 나도 이 글을 쓰는 데 있어 그렇게 할(정의를 내려야) 필요가 있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관련있고 성과있는 연구의 범위를 시사할 수 없을 것이다.

어떤 현상의 범위가 처음으로 탐구될 때 관념상의 비명료성과 혼란을 보는 것은 흔한 일이다. 하지만 우리가 관련 있는 변수를 관찰하고 측정하기를 원한다면, 또한 방법적으로 건전한 연구를 실행하고 근거가 확실하며 의외할 만한 발견과 결론을 전개하려면, 우리는 최대한 간단하고도 깔끔하게, 그리고 조작 운영할 수 있게 명료한 방식으로 집단적인 의식을 정의해야만 한다(예를 들면, 측정 가능한 변수를 포함한다든지 하는 방식).

나는 다음의 글에서 집단 의식의 실질적인 정의를 제시할 것이며 그 정의를 인간 개발 모델에 맞춰놓으려 한다.

## 인간 개발의 한 모델

윌버는 최근 저서의 온라인 초안(草案)에서 인간 발전의 통합적인 모델 기획을 계속했는데, 그 모델은 사려깊고 선명하며 엄격하고 이분야(異分野) 제휴의 성격을 띤다. 인류의 오래된 지혜의 문서들과 과학적인 연구의 비교문화 조사에 그 기반을 둔 것이다. 그 모델의 범위가 참으로 폭넓기 때문에 집단 의식을 정의하고 관련 연구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데 매우 훌륭한 전반적 틀이 되어 준다. 그것은 단일 분야 이론과 연구의 흔한 폐단인 개념적 혼란을 막아주고 절대론에 빠지거나 틈이 생기는 것을 피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는 자신의 모델에서 초개아적 발달 단계에서 문화적으로 조건 지어진 형이상학적 관념을 제거함으로써 집단 의식을 과학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윌버는 개인 및 집단적 발달의 총체적 정신사회성 도식을 그려 통합모델을 묘사했다. 그는 전승된 지혜와 과학적인 응용을 통해 나온 이론과 연구를

바탕으로 의식수준과 개발의 형태 사이의 상관관계를 제안했다. 그의 모델의 수직 축은 개인이나 집단의 전반적 의식 수준을 나타낸다(10개 수준이 제시되었다). 수평축은 12개의 발전 유형을 나타내는 데 그 가운데는 인지적(피아제, 오로빈도), 자아 감지/정체성(로빙거, 쿡- 그루터), 도덕적(콜버그), 필요(머슬로우), 가치(그레이브스, 나선 동역학), 대인 관계의(가드) 발달 등이 있다.

개인의 발달에 대한 간략한 예시를 보이자면, 사람들 각자의 삶의 어느 한 지점에서 일련의 초개아적 단계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 단계에서 “정체성이나 자아에 대한 인식이 개인을 넘어 인류의 더 넓은 측면을 포괄하게 된다.” 월버는 이런 단계의 처음 수준을 인지 발달 선상에서 ‘고차의 마음(비전-논리)’이라고 이름 붙였다. 여기에 도달한 개인은 자신의 이전 정체성(즉 예고, 가족, 집단의 일원, 그룹, 종족, 국가 중심적)을 초월하긴 했으나,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이제는 의식적으로 ‘모든 인간뿐 아니라 자연과 함께하는’ 세계 중심적인 정체성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들은 ‘실현된 자아 존중의 욕구를 자유로이 교환’하는 상호 인식의 단계를 넘어 분리와 이원론이라는 환영(幻景)을 초월해 서로 안에서 자신을 인지하는 공통의 정체성을 획득하게 된다. 개인은 예를 들어 예고(자아), 가족, 종족, 도시, 국가의 경계를 초월하지만 그들을 껴안는 공동선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결정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그에 반해, 이전 단계의 개인은 통합에 이르기 위해 집단에 다채로운 관점을 첨부한다. 그런데 비전-논리의 단계에 있는 개인들은 “직관을 통해 통합의 단계를 직접적으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직관적 능력의 개발은 집단 의식을 발달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연구결과 그룹의 구성원들은 서로의 표현되지 않은 생각과 감정을(어쩌면 영적인 지성까지도) 직접 파악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몇몇 사람들은 팀을 이루었을 때 상대적으로 빨리 마음에서 마음으로 연결되는 비언어적 상호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내 경험에 의하면 팀이나 조직(단체)은 그 구성원들의 개인적인 관점을 능가하면서도 통합하는 수준의 지혜에 접근할 수 있다.

발전적이고 영적인 문학은 집단 의식이란 용어로, 정체성과 배려의 테두리를 더 넓게하는 진화적 진보를 묘사한다. 즉, 특정 그룹(결혼, 가족, 조직 등)에서 공동체(지리적 위치별, 관심사별)로, 하나의 사회나 문화(국가적, 인종적, 부족적 등)로, 모든 생물계로, 자연(생태적 의식)으로, 지구(지구적 의식)로, 우주(우주적 의식)로, 그리고 온 우주 (Kosmos: 온 우주 의식)로 나아가는 것을 뜻한다. 전승 지혜에서는 각 개인이 궁극적으로는 “성령과의 자기동일시를 인식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 집단 의식의 정의를 내림에 있어

계속 확대되는 자기정체성을 연못에 조약돌을 던지면 점점 퍼져나가는 둥근 원 모양의 파문(波紋)으로 비유할 수 있다. 월버의 10단계 의식 모델에서 초개아적 발달 단계는 6수준에서부터 9수준까지이다. 나는 집단 의식이 6수준에서 등장하기 시작한다고 믿는다. 그것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자. “집단 의식이란 직관적 감각을 통해, 상호 연결된 전생명과의 하나 을 직접 경험하고, 타인속에서 자신을 보게 하는 의식의 한 형태이다. 우리의 정체성은 개인의 경계를 넘어 집단 전체를 껴안는데, 그것은 협의회나 외적인 권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유롭고 의식적인 행위를 통해서이다.”

일단 이런 의식이 계발되기 시작하면 개인들은 이제 자신보다 더 큰 전체의 서로 의존하는 부분으로서 지각하기 때문에 자신이 속한 공동체(조직체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지구적 공동체)의 공동선과 웰빙, 의료와 생산적인 기능에 일차적인 관심과 배려를 계발한다.

내가 지금 기술하고 있는 것이 집단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에게 존재하는 의식 형태라는 것에 주목하기 바란다. 때로는 집단 의식이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는 ‘그룹의 마음(group mind)’이라는 용어가 하나의 새로운 마음이라는 즉, 의식이 집합적인 실재로서 발생한다는 인상을 주는데, 이는 현재로는 순수이론의 견지를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의 나는 연결, 교감,

타인의 생각이나 감정의 직접적 이해 등과 같은 보고된 경험이 한 그룹의 구성원들 간에 보이지 않는 상호작용의 형태에 기인한다는 이론을 단순히 지지하고 있다. 다음에 인용된 연구는 그러한 상호작용의 특성에 대한 일부 개연성 있는 윤곽을 설명해 줄 것이다.

또한 내가 칼 융(Carl Jung)에 의해 창안된 ‘집합 무의식’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음을 주목해 주기 바란다. 그가 주창한 집합 무의식이란, 여러 문화권에 걸쳐 나타나는 보편적이고 원형(元型)적이며 신화적인 심상과 상징을 의미하는 것이다. 집단 의식이 계속 넓어지는 정체성의 동심원을 포함하며, 따라서 우리가 다른 인간들 및 모든 생명체의 현현(顯顯)과 의미심장하게 연결되어 있게 하는 우주적 법칙을 자각하는 것이 포함되지만, 집단 의식과 지혜를 구축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의식적인 행위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진정한 지혜에 도달하기 위한 열쇠로서 다양성에 자양분을 주어 기르는 행위인 것이다.

### 이론을 개발하고, 모델, 실험 가능한 가정(假定)을 세우기

내가 알기로는, 그 누구도 집단 의식과 관련해서 어떤 이론이나 모델, 실험가능한 가정을 세운 사람이 없다. 한 가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생산적인 방법은 집단 의식을 체험했다고 믿는 개개인들을 인터뷰한 사실에 기 해 이론을 세우는 정성 연구 방법(qualitative research method)을 사용하는 것이다. 정성적(定性的) 연구 방법은 그러한 현상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관점과 경험에서 나온 이론과 가정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론에 자료를 맞추기 보다는 사람들의 경험 자료에 이론을 맞추어 형성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과학자들은 흔히 어떤 현상을 경험하거나 관찰한 후 표면적으로 드러난 관련 변수 사이의 연관성을 알아차리고 연구해 그럴듯한 원인-결과의 관계를 추측하고 조사한다. 그 후 설명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탐색하고 자명한 일로서 가정, 그 원인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다. 처음의 두 활동은 과학자들이 어떤 이론이나 모델을 형성하기 전에 행하는 과정이다. 내가 알기로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집단

의식에 대한 연구의 상황이다. 내가 쓴 이전 글과 다른 사람들이 쓴 글에서 집단 지혜의 특성과 범위, 여러 변수 사이의 관계 그리고 잠재적 원인-결과의 관계가 가정되었다. 그 가운데서 꼭 포함되어야 할 것들은 다음과 같다.

- 집단 의식의 감지된 경험의 특성. 여기에는 공명(共鳴), 교감, 공동체 감각, 상호 연계성, 상호 이해, 존경과 지지, 상호간 공동선의 증진과 복지를 위한 배려, 서로의 생각과 말, 행동을 사전에 인지 하기, 사랑, 직관, 개방성과 수용성, 시 지, 조화, 온전히 들려지고 보여지도록 하는 것, 공유되고 연관되고 통일된 의식, 그룹의 장에 대한 감각 등이 있다.
- 집단 의식과 연관 있거나 그에 의한 효과, 집중된 그룹의 의도, 예를 들면 증진되는 개인적 단체적 사회적 창의성, 공조, 갈등 해결, 지혜, 신체적 정신적 건강과 효율성. 그리고 향상된 의사 결정.
- 집단 의식의 출현과 이점을 지원하는 조건들. 예를 들면 성스러운 시공간 감각의 창조, 훌륭한 청취와 의사소통, 개방성, 수용성, 신뢰, 참여자 간의 정서적 결속(온정, 사랑, 배려 등), 직관, 관용, 존경, 포섭성, 목적이나 의도의 명료화, 명상적 관조적 실행, 더 높은 차원의 의식 수준 계발 등이 있다.

집단 의식은 매우 복잡한 현상이다. 많은 양상과 특질이 검토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집단 의식의 내적 경험의 질적 측면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또는 집단 의식의 관찰 가능한 외적 표현과 효과 그리고 집단의 생산적 기능에 관심을 표시하는 구성원들의 행위에 중점을 둘 수도 있다.

우리의 모델은 개인과 집단적 발달의 복잡성과 총체성을 반영하도록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 작용의 여러 변수는 연구를 보다 도전적으로 만들었다. 다른 한 편으로는 잘 짜여지고 비교문화적이고 장기적이며 해석학적, 구조적 연구는 인간 발달의 복잡성의 가치를 감소시키기 보다는 높여주어 개인과 집단적 발달 사이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집단 의식의 성격을 심오하게 이해하도록 해 주었다.

다음 글에서 나는 연관된 이론과 연구를 기술하려고 하는데, 이는 집단



의식의 적절한 모델을 세우고 집단 의식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위함이다.

### 집단 의식의 감지되는 지각: 원거리 파악(tele-prehension)

확장된 마음이란 많은 검증 가능한 예측으로 인도하는 일종의 과학적인 가정이다. 그것은 이미 사람들의 자연스런 경험과 통제된 실험 모두에서 나온 많은 분량의 증거로 지지되고 있다.

- 루퍼트 쉘드레이크(Rupert Sheldrake)

집단 의식의 특징을 설명해 달라는 인터뷰를 받으면 누구나 보통 다른 사람의 언행(言行)을 예측하고 독심(讀心)할 수 있으며, 그의 시각과 감정으로 볼 수 있고 마음과 정신의 조화로운 공명(共鳴)을 가능하게 하는 초(超)감각적 지각이나 의사소통과 관련된 답변을 하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은 깊은 연결성의 느낌에 대해 말한다. 이것은 일반적 감각을 사용하지 않고 둘 이상의 지성 사이에서 정보를 교환하는 텔레파시 덕분 때문이다.

월버는 다른 연구자들이 알아낸 것처럼 초심리(psi)에 대한 증거가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쉘드레이크는 초심리 연구의 대부분이 주류 과학 연구에서 쓰이던 것보다 더 엄격한 연구 방법을 사용한 '과학적이고 개방적이며 실험적이라는' 데 주목하였다. 그리고 우연치를 크게 벗어난 결과를 제시했던 것이다.

월버는 즉각 직접적으로 타자의 감정을 느끼거나 타자의 생각을 아는 이런 능력을 '원거리 파악(tele-prehension)'이라고 불렀다. 그는 원거리 파악이 세 가지 방식으로 나타난다고 판정한다.

1. 심령이나 초심리 현상. 주요 사례로 텔레파시, 원격의 감정이나 지각, 인식 파악
2. 초월 자아(영; 靈). 월버는 비(非)이원적이고 비(非)국소적인 초(超)자아가 모든 주체(subject)에 깃들여 있어, 내부 세계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상호주관성이 의사소통이 일어나기 전에 홀론(holon: 부분이면서 전체인 것)을 연결시킨다고 믿는다.

3. 조화로운 감정이입이나 공명(共鳴). 예를 들어 현악기에 친 하나의 음이 외부 공명과 진동에서 근처의 다른 현악기의 같은 현(絃)이 진동하도록 한다. 조화로운 감정이입은 두 지각체 내에서 내적으로 일어나는 공명이다. 이는 유사한 수준에서 다른 홀론과의 즉각적이고 상호주관적인 현존이나 공명이다.


두 번째로 제안된 원거리 파악의 근원은 위에 논의된 바와 같이 전통 과학의 한계를 다시금 돌아보게 한다. 또한 집단 의식의 참되고 온전한 이해를 개발하는데 있어 명상 실행과 직접적인 인식의 중요성도 돌아보게 된다. 물론, 전통적인 과학은 첫 번째와 세 번째 현상을 연구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그것들이 두 번째 것의 외부 현현(顯現)일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랄프 월도 에머슨(Ralph Waldo Emerson)은 전문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집단 의식의 경험을 묘사한 듯 싶다. 그는 월버의 원거리 파악의 두 번째 설명과 비슷하게 그의 경험을 신성의 현존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에머슨은 ‘모든 존재를 통해 나타나는 공통된 본성’을 발견하고는 이것이 신(神)이 아니겠냐고 했다. 특히 고차의 의문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이루어질 때는 참가자 모두의 가슴에서 생각들이 같은 수준으로 떠오르며, 말하는 사람이나 말 자체에도 영적인 특질이 있음을 자각하게 된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이전 보다 현명해지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의 융합은 사원과도 같이 모든 이를 연결한다. 모두가 보다 고차적인 자아감에 도달하게 되었음을 의식하게 된다. 그것은 모두를 위해 빛난다.

에머슨은 초월한 영혼(Over-soul)이라고 신을 표현했다. 그는 “신실한 대화 속에서 한 마음을 갖는 것이 예배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비슷하게 프리드리히 홀더린(Friedrich Holderlin)은 “...우리는 침착하게 미소를 지었다. 우리는 영혼을 묶어 주는 하나의 노래를 부르면서, 친밀한 대화 가운데서 하느님을 감지했다.”

다만 집단이 초감각적인 현상 자체에 사로잡힌 나머지, 집단 의식의 확장된

역량을 공동의 선을 위해 개발하고 사용하기 보다는 서로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놀라운 감정을 반복해 만들어 내는 데 빠질 가능성이 있다. 만약 집단 의식이 진정코 원거리 파악의 직접적이고 직관적인 감지를 포괄한다면 상호 이해, 감정이입, 자비, 상호 보조, 효율적인 의사 결정, 창의성, 갈등 조정과 공동 작업 등은 심오해질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원거리 파악에 관한 연구는 고려할 만한 중대 사안이다. 공동체, 조직, 사회를 위한 상기한 이점을 획득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중요 요인이나 변수의 정체를 규정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셸드레이크는 일반인들이 실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단순한 실험을 제시했다(이번호 셸드레이크의 온라인 텔레파시 실험 개설 참조). 그가 ‘제7의 감각’이라고 말하는 원거리 파악을 과학적으로 탐구하고 문서화하는 데 도움되는 실험이었다(제 6감과 구별하여, 생물학자가 동물의 전자기적 감각을 언급하는 용어). 그는 이런 현상은 설명할 수 있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독자가 셸드레이크에게 문의하기 바란다. 다음에는 미세 에너지(subtle energy)와 장(場) 및 초심리 현상에 대해 개관하려 한다.(다음호에 계속) 

- 이 글은 “What Can Science Tell Us About Collective Consciousness?”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없이 무단 전재나 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 | **로버트 케니**(Robert Kenny, MBA, PhD) | 로버트 케니 박사는 퍼쳐 연구소의 특별회원이며 LTOC(Leaderful Teams Organizational Consulting)의 설립자이다. 이전에는 21년동안 인적자원 관리이사였다. 그는 집단의 지혜에 대한 수많은 기사들을 썼으며, 현재 “Change Your Life, Change Your Work: The Transformative Power of Reflective Practice and Inspired Action”이란 책을 집 중이다.

역자 | **이한샘** | 대학 때 여러 문제(정체성, 가족 관계, 진로)로 고민하다가 형이상학적인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 가운데서도 종교, 정신의학, 상담학, 각종 신경향의 치유법 등이다. NLP, 에니어그램, Virginia Satir의 가족 치료, 독서 치유, 이야기 치유, 만트라 명상, 글쓰기 치유 등을 공부하였다. 종교 가운데는 사비교,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조로아스터교, 힌두교 등을 약간 공부했는데 특히 이슬람교와 조로아스터교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요즘은 경기도 가평의 어느 조그마한 마을에서 이슬람 시아파의 법을 공부하면서 동네 아이들을 조금 가르치고 있다.